

깔뱅은 예술을 어떻게 보았는가?



최태연 현재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이자 백석대학교 기독교인문학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이자 한민족교류재단 자문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인문주의자 칼뱅

칼뱅은 종교개혁 2세대에 속한다. 종교개혁의 횃불을 든 마르틴 루터가 1483년생, 26년 후인 1509년에 칼뱅이 태어났으니 말이다. 칼뱅과 루터는 민족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루터가 전형적인 독일인이란다면, 칼뱅은 전형적인 프랑스인이다. 칼뱅은 파리 북쪽 피카르디 지방의 노와용(Noyon)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다. 집념이 강한 소시민이었던 아버지 제라르는 총명한 칼뱅을 성직자로 키우기로 마음먹었다. 고향에서 중등교육을 마친 칼뱅은 파리의 몬테귀대학에서 신학과 문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오를레앙과 부르제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면서 본격적인 인문주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공부에 전념했다. 그는 1532년 23세의 나이로 대학을 졸업하면서 『세네카의 관용론에 대한 주석』을 출판, 프랑스의 촉망받는 인문주의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1533년에 일어난 필화사건이 그의 삶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절친한 사이인 니콜라 콕이 파리대학 총장에 취임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취임설교를 하다가 체포된 것이다. 칼뱅 역시 위협을 피해 개신교 도시인 스위스의 바젤에 정착하여 인문주의 저술가로 자리잡게 되었다. 1536년 그는 고국인 프랑스에 잠시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네바에서 며칠을 묵게 되는데, 여기서 제네바의 개혁자가 탄생하게 된다.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을 펼치던 정열적인 파렐 목사가 칼뱅 같은 인물이 제네바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 경고한 것이다. 파렐의 요청에 칼뱅은 제네바에 머물며 종교개혁의 불꽃을 일으켰고 제네바를 유럽 개혁교회의 요람으로 만들었다.

칼뱅은 루터의 영향으로 종교개혁에 뛰어들었고 평생 그를 존경했지만, 그의 사상적 배경은 루터와는 다르다. 루터는 독일 어거스틴 수도회의 수도사로 중세 후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지적으로는 합리적 논증의 한계와 의지의 중요성을 발견한 오캄의 유명론이 사상의 토대가 되었고, 영적으로는 타올러나 아퀴나스 같은 신비주의자들이 깊은 흔적을 지니고 있다. 반면 칼뱅은 로이힐린과 부데, 에라스무스 같은 인물과 인문주의 교육의 영향 하에 있었다. 그는 프랑스의 여러 대학에서 교육받았으며 프랑스 인문주의자 르페브르 데타플의 제자였다. 또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에 능통했고 그리스와 로마 고전을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었다. 그의 이러한 능력은 후에 기독교강요와 성경 주석에서 아낌없이 발휘된다. 칼뱅은 기독교의 계시 위에 확고하게 서면서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통해서 신학과 철학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 그는 종교개혁자이면서 지성을 무시하지 않는 인문주의자(humanist)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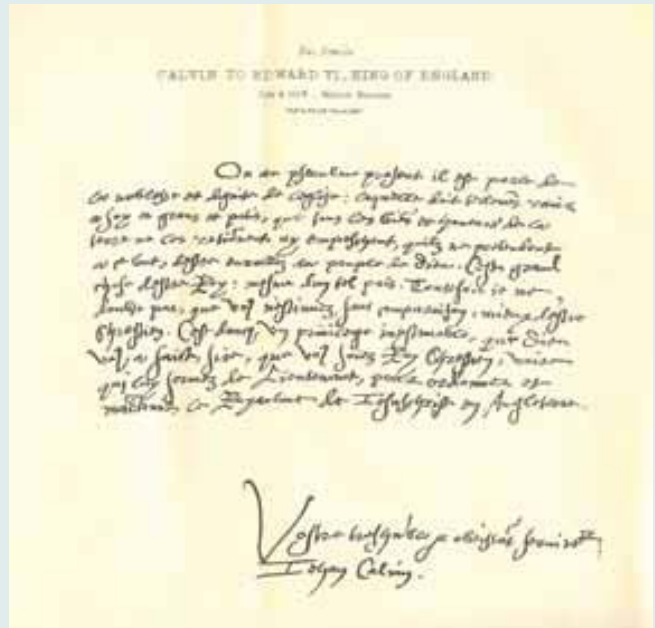
성상반대론자 갈뱅

16세기 종교개혁은 중세 후기에 성상반대론이 힘을 얻으면서 일어났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은 기독교회의 무분별한 성상옹호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에라스무스나 르페브르도 성상숭배의 부작용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갈뱅의 성상반대론은 어떻게 정립되었을까? 그는 성경에 근거하여 성상숭배를 비판하였고 이는 하나님의 위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며 멀리하였다. 그는 출애굽기 20:4에 근거하여 우상숭배를 경계하며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에 반대했다. 구약 출애굽 당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었을 뿐 하나님 자신은 아니었다. 또 신약시대에 비둘기의 모습으로 성령이 임했지만, 그 형상에 대한 숭배를 막기 위해 즉시 사라지셨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갈뱅은 예술적인 재능을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이라고 보면서도 이러한 인간의 은사가 인간을 덮고 있는 죄와 무지 때문에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술은 자기애(amor sui)와 야심을 버리고 겸손하고 선하며 사회공동체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원리를 무시하면 하나님 대신 다른 대상을 경배하는 우상숭배에 빠진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민중이 성상과 성유물을 숭배하는 현장을 목도하고 1543년 『성유물에 대한 비판』이란 글을 쓰기도 했다.

“나는 어린 시절에 본 교구의 성상에 대한 관습을 생각해 본다. 성 스테반의 축일이 오면 그에게 돌을 던져 죽인 폭도들의 형상도 스테반의 형상과 함께 정성껏 모자와 리본으로 장식했다. 순박한 여성들은 이렇게 장식된 폭도들조차 성자의 무리라고 생각하여 그들에게 양초를 바쳤다. 그와 같은 일이 천사장 미가엘과 싸운 악마상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¹⁾



그는 형상, 즉 성상을 통한 예배를 전적으로 거절하면서, 성상에게 드리는 존경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dulia)이지 예배(latria)가 아니라는 로마가톨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한 상징들은 인간들의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봉사를 넘어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예배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수사학자 갈뱅

갈뱅은 웅변을 ‘말 잘하는 예술’이자 가장 큰 예술이라고 보았다. 그는 우아하게 화제를 이끌어 가면서 복음을 설득하는 웅변술을 인정했고, 특히 이사야서에 이러한 수사적 웅변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았다.²⁾ 인문주의는 고대의 수사학 전통에서 유래되었다. 수사학은 언어가 의사소통을 위한 관습적 도구라는 점을 처음으로 간파한 프로타고라스, 수사법을 체계적인 교육학으로 정리한 이소크라테스를 거쳐, 로마의 키케로, 퀸틸리안 등에 의해 확립되었고 르네상스와 북유럽 인문주의자들(로렌조 발라, 쿠자누스, 로이 힐린, 위클리프, 에라스무스)에 의해 재발견되었다. 인문주의자들은 성경 자체의 언어와 사상에 집중함으로써 기독교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데 기여했다.

1) 장 갈뱅, 『성유물에 대한 비판』, 김동현 옮김 (서울: 솔로몬, 1993), 102.

2) Joannis Calvinus, Opera omnia VIII, 169.

칼뱅에게 언어는 ‘인간사회를 묶어주는 접착제’로 인간성(humanitas)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는 성경해석에 대한 수사학적 원리를 ‘간결’(brevitas)과 ‘용이’(facilitas)로 규정하면서 철학적이거나 우의적(allegorical) 해석을 피하고 성경언어의 단순하고 구체적인 파악을 중시하였다. 또 인간의 특별한 감정을 전달해주는 언어의 능력도 중시하였는데, 성찬에 대해서도 말씀의 생생함을 드러내는 수사적 해석을 시도했다. “이것은 내 몸이다.”(막 14:22, 고전 11:23)라는 주님의 말씀은 성찬식의 떡(빵)이 실제로 몸으로 변화한다거나 단순한 언어적 상징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영적 실재를 언어적으로 표현한 일종의 환유(metonymy)라는 것이다.

예술의 옹호자 칼뱅

칼뱅은 『기독교 강요 Christianae Religionis Institutio』 2권에서 예술과 과학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았다.

“우리 중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재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의 예리한 능력은 예술과 과학을 배우는 데서 나타난다...모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인정해야만 하는 이러한 선함은 여전히 보편적이다.”³⁾



칼뱅에게 예술과 과학은 성령께서 인간의 공동선을 위해 나눠주신 은사였다. 예술은 창조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재현하는 인간의 창의적 행위였다. 그는 창세기 4장의 유발에 의한 예술의 시작에 감탄하면서 이러한 능력을 ‘성령의 뛰어난 선물’로 보았다. 칼뱅은 또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나타난다는 말씀(로마서 1:19-20)에 근거하여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극장’(a theatre for God’s glory)이라고 보았다. 칼뱅은 죄에 의해 오염되고 일그러진 세상보다 더 높은 현실, 즉 타락 이전 창조의 아름다움의 일부를 보여주는 역할을 예술이 한다고 믿었다.⁴⁾ 따라서 그는 당시 교회로부터 ‘세속적’이라고 비판받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예술가들을 격려했다.⁵⁾ 그러나 이러한 미적 표현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길은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다. 그는 이 ‘들음의 길’이 가시적인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즉 세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해되는 하나님의 영은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예술에 대한 칼뱅의 신학적 통찰력은 후세에 큰 영향을 주었다. 렘브란트와 베르메르로 대표되는 네덜란드의 바로크 미술과 컨스터블, 허드슨 강 유파에 의해 꽃핀 영국과 미국의 낭만주의 미술은 인간과 자연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야 한다는 그의 사상적 영향력을 보여준다.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칼뱅의 예술적 유산을 이어 받아 이상숭배적 결과를 내지 않으면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표현하는 예술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

3)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by John T. McNei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II, ii, 14.

4) Peter Heslam, Creating a Christian Worldview: A. Kuyper’s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1998), 210-211.

5) 에밀 두메르그, 『칼뱅 사상의 성격과 구조』, 이오갑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85-89.